

백광훈 시 ‘석양’ 이미지의 시어 구성 양상

김영국*

차 례

1. 머리말
2. ‘석양’ 이미지
3. 시어 구성 양상
4. 맺는말

| 국문초록 |

백광훈(1537-1582) 시의 우점은 평범한 시어의 압운에 따른 미적 포치를 통해 짧은 절구에 자신의 청신한 정서를 고담하게 담아낸 데 있다. 이는 정과 경이 하나로 융합된 이미지를 찾아 짧은 절구에 함축시킴으로써 가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수사 형식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백광훈은 같은 시료일지라도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 적의하게 조사함으로써 절구를 보다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아울러 함축을 통한 유원함을 추구하여 이미지가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지고 깊은 여운을 남기게 하였다.

백광훈은 풍부한 당시 표현 역량으로 ‘낙일’, ‘모’, ‘만’, ‘석양’ 등을 시구 속에 적절하게 조사하여 무상, 산수전원의 閑情, 無奈의 서글픔, 한없는 그리움의 ‘석양’ 이미지를 함축시키고, 칠언절구의 기본 구형인 4자/3자 구성에서 ‘석양’, ‘낙일’이 쪼개지지 않게 조사하면서 앞 2자와 뒤 3자를 연결하는 ‘석양’ 이미지를 써 뛰어난 시적 미감을 완성시켰다.

핵심어 : 백광훈 시, ‘석양’ 意象, 절구, 措辭, 평측, 압운, 당시풍

1. 머리말

문학은 역사적 산물이기에 그 시대와 사상을 반영한다. 곧 작가는 자신이 처

* 조선대학교

한 당대의 현실적 상황과 시대정신 속에서 자신의 현실인식 태도와 인생관을 바탕으로 역사적 현실을 직시하며 그것을 작품에 수용하여 시대적 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목릉성세로 불린 조선 선조 시대는 한국 한시의 사적 전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시기이다. 사변적, 주지적 경향의 송풍에서 인간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려는 당풍으로 시풍이 변환하였는데, 이 흐름의 중심에 白光勳(1537-1582)이 있었다.

중종반정을 기점으로 개막된 16세기는 전변의 시대였다. 徐居正(1420-1488), 成俔(1439-1504)을 계승한 이 시기의 대표적 관각문인은 南袞(1471-1527), 李荇(1478-1534) 등인데, 송풍을 중시하여 朴闇(1479-1504), 鄭士龍(1491-1570)과 함께 해동강서파로 불린 이행의 시를 서거정의 시와 비교해 보면 화미함은 적고 담담하고 화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는 사화라는 시대적 분위기가 사장의 화미를 벗어나게 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趙光祖(1482-1519)를 중심으로 지치주의를 표방하고 철저히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하여 개혁정치를 펼치려던 사람과는 반동적 훈구세력이 획책한 기묘사화(1519)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들은 비록 권력투쟁에서 패배하였지만 그들이 세운 정치적 방향과 사상관점은 후일 하나의 정신적 지표가 되었으며, 그들이 남긴 문학은 전형이 되어 조선 중기 이후 성숙한 사람문학을 여는 준비단계로서의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시기 호남시학의 연원이 朴祥(1474-1530)이었고, 그의 제자 宋純(1493-1583), 林億齡(1496-1568), 朴淳(1523-1589) 등을 거쳐 梁應鼎(1519-1581), 백광훈, 鄭澈(1536-1593), 崔慶昌(1539-1583) 등에게로 이어졌다. 백광훈은 박상과 金淨(1486-1521)을 마음의 스승으로 받들며 따라 배우고자 하였다. 이들의 미의식은 기교를 반대하고 현실을 멀리하며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인욕을 씻어 청정한 정신을 찾으려는 데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 시기의 사조와 맥을 같이하지만 보다 문예 애호주의 경향을 띠고 있으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다양하고 풍부한 정서를 인정하고 있다는 데서 여타의 그것과 다르다.

조선의 문풍 변환은 중국과 무관하지 않았었다. 明의 시풍은 개국 초에 수립된 대각체가 成化(1465-87) 연간까지 줄곧 유행하다 弘治(1488-1505), 正德(1506-

21)에 이르러 前七子가 나와 비현실적인 대각체를 반대하고 성당 때의 시풍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杜甫(712-770)를 모범으로 삼을 것을 제창하였다. 이 시풍개혁운동은 嘉靖(1522-66)에 이르러 王世貞(1526-90), 李攀龍(1514-70) 등에 의해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1518(중종13)년부터 1584(선조17)년까지의 주로 명과의 외교문서를 담당하였던 관각의 무엇보다도 우선하였던 현안 문제는 宗系를 辨誣하는 일이었다. 명과 마찬가지로 관각 관원은 글 잘하는 문신이어야 될 수 있었는데, 국초 이래로 미해결 상태에 놓여 있던 이 미묘한 일을 번무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각원들은 우선 명의 각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문장력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먼저 명의 문풍을 파지할 필요가 있었다.

바로 이러한 내외적 상황 아래 당시의 당풍 운동을 주도하였던 관각 관원들이 盧守愼(1515-1590), 박순, 李珥(1537-1584), 정철, 李後白(1520-1578), 양응정 등이었다. 이들은 명에 다녀온 적이 있고 명과의 외교 과정에서 문장력으로 인정을 받았으니, 그것은 곧 學唐으로 요약된다. 이 시기에 당풍시의 정화라고 할 수 있는 삼당시인의 한 사람인 백광훈은 맨 처음 학당을 주장했던 이후백의 초기 문인이었으며 양응정, 노수신에게 배운 뒤에 박순에게 배웠고 정철과는 지기로 그의 문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백광훈 시가 백광훈 시인 까닭은 평범한 시어의 압운(rhyme)에 따른 미적 포치(措辭)를 통해 짧은 절구에 자신의 청신한 정서를 고담하게 담아냈기 때문이다. 이는 情과 景이 하나로¹⁾ 융합된 이미지를 찾아 짧은 절구에 함축(implication) 시킴으로써 가능하였다. 필자는 그 대표적 이미지가 '석양'임에 착안하였고, 이 이미지의 정·경 융합은 함께 삼당시인이라 일컬어진 최경창, 李達(1539-1612)과도 확연히 구별되는 그만의 특성인바 이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지금까지 백광훈 시에 대한 연구는 최낙원, 안병학, 김영국, 정병홍·임채룡, 최경환, 유현숙, 김종서, 차경화, 박종훈, 강석중, 차용주, 변종현, 박병익, 이선희,

1) 王夫之, 「夕堂永日緒論內篇」 3頁, 「詩譯」 3頁, 『船山遺書』(上海, 民國22) 73冊. “情景名爲二而實不可離, 神於詩者, 妙合無垠, 巧者則有情中景, 景中情者.” “情景雖有在心在物之分而景生情, 情生景.”

조영임, 박영관, 김금숙, 권순열, 윤재환, 천부성, 李丹, 嶽秋菊·張京靑, 楊會敏 등에 의하여 꾸준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²⁾ 대부분의 연구들은 번역된 백광훈 시의 내용을 위주로 하였고, 백광훈 한시 원작의 修辭 형식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백광훈 시의 어떤 특징이 목릉성세기의 시풍 변화에 어떻게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를 가져왔는가를 찾아내는 데 있다. 선행연구들은 백광훈 시의 번역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이나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는 데 그쳤다. 그러다 보니 한시 원작 본연의 수사학적(rhetoric) 접근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먼저 백광훈의 오언절구와 칠언절구에 나타난 ‘석양’ 이미지를 통해 표현 내용의 특징을 살피고, 이어 ‘석양’ 이미지를 담고 있는 ‘夕陽, 落日, 晚, 斜陽, 日暮’ 등 시어의 조사 양상을 사용 빈도순으로 분석

- 2) 최나원, 「옥봉 백광훈의 한시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1986.
 안병하, 「삼당파 시세계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88, 80-112쪽.
 김영국, 「백옥봉의 오언절구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제11집, 조선대인문과학연구소, 1989.
 ———, 「옥봉 백광훈의 시 연구」, 원광대 박사논문, 1994.
 정병홍·임채룡, 「삼당시인 백광훈의 한시」, 『인문사회과학편』 제10집, 순천대논문집, 1991.
 최경환, 「백광훈의 오언절구와 정경결합양식」, 『동양한문학연구』 제8집, 동양한문학회, 1994.
 유현숙, 「옥봉 백광훈론」, 『석당논총』 Vol.19 No.1, 동아대 석당학술원, 1993.
 김중서, 「옥봉 백광훈 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4.
 차경화, 「옥봉 백광훈의 교유시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1998.
 박종훈, 「옥봉 백광훈의 시세계 연구 - ‘창’과 ‘답’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2000.
 강석중, 「옥봉 백광훈의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제6집, 태학사, 2001, 491-508쪽.
 차용주, 「백광훈 연구」, 『한국한문학 작가연구』 제3집, 아세아문화사, 2001, 276-316쪽.
 변종현, 「백광훈 한시 연구」, 『교육이론과 실천』 제12권 제2호, 경남대학교문예연구소, 2002.
 박병익, 「16세기 삼당시인의 당시풍 연구」, 목포대 박사논문, 2005, 59-83쪽.
 이선희, 「옥봉 백광훈의 한시 연구: 절구시를 중심으로」, 충남대 석사논문, 2004.
 조영임, 「삼당시인의 시세계 연구」, 충북대 박사논문, 2004.
 박영관, 「옥봉 백광훈의 교유와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논문, 2006.
 김금숙, 「白光勳 漢詩에 나타난 공간 이미지 분석」, 『어문논집』 제38집, 중앙어문학회, 2008.
 권순열, 「옥봉 백광훈 연구」, 『고시가연구』 23권, 한국고시기문학학회, 2009, 1-24쪽.
 윤재환, 「『三唐集』을 통해 본 조선 중기 문인들의 이별 그리고 그리움의 변주: 삼당 사이의 교유시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제7집, 고전문학한국문학연구학회, 2009.
 천부성, 「옥봉 백광훈의 시 연구」, 청주대 석사논문, 2010.
 李丹, 「백광훈과 李商隱의 한시 비교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16.
 嶽秋菊·張京靑, 「“三唐詩人”詩歌藝術特色論析」, 『理論學刊』第10期, 山東大學威海分校, 2009.
 楊會敏, 「論朝鮮詩人白光勳詩歌的宗唐風韻」, 『哲學社會科學版』, 齊齊哈爾大學學報, 2011.

하여 백광훈 시의 수사학적 표현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석양' 이미지

『玉峯詩集』 소재 백광훈의 시는 451제 514수이다.³⁾ 이 가운데 오언절구가 113제 134수, 칠언절구 192제 220수로 절구가 2/3를 차지한다. 이는 백광훈이 절구에 능하였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354수의 절구 가운데 '석양'이 쓰인 것은 오언절구 33수, 칠언절구 53수이다. '석양'은 '夕陽, 落日, 晚, 斜陽, 日暮, 日落, 夕, 暮, 斜日, 落暉, 日已斜, 日又西山, 西日, 日出西峯, 日終, 暝, 日斜曛, 日未終, 日未斜, 殘陽, 殘暉, 黃昏, 西山影'으로 표현되었다.

이제 대표적인 몇 작품 속에서 구체적인 '석양'의 이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秋草前朝寺	옛 왕조의 절 트랙에는 가을 풀만 무성하고
殘碑學士文	학사의 글이 적힌 빛들은 스러져가네.
千年有流水	천년 세월이 물과 같이 가고
落日見歸雲	석양에 구름만 흘러가누나. <弘慶寺>

許楚姬(1563-1589)가 성당의 궤철을 밟았다고 평한⁴⁾ 이 시는 백광훈의 시풍을 특색 있게 보여 주는 대표작으로 『玉峯詩集』의 머리에 실려 있다. 弘慶寺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흥3길 77-48에 있었던 麗代의 절로 절터 안에 석유 崔沖(984-1068)이 짓고 명필 白玄禮(1026년경)가 쓴 국보 제7호 「奉先弘慶寺碑碣」이 남아 있다. 백광훈이 옛 국도 변에 있는 이 폐사 곁을 지나가다 이 殘碑를 보고 느낌을 절구로 압축한 것이 바로 이 시이다.

백광훈의 지우 최경창은 본관이 해주로 여기 최충은 그의 원조이고, 백현례는

3) 박영관, 「옥봉 백광훈의 교유와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논문, 2006, 5쪽.

4) 許筠, 「鶴山樵談」, 『許筠全書』, 468쪽. “白光勳…… <弘慶寺> ……壬午病卒京邸, 蘭雪姊氏感遇詩有曰: 近者崔白輩, 攻詩軌盛唐, 寥寥大雅音, 得此復鏗鏘, 下僚因光祿, 邊郡悲積薪, 年位共零落, 始信詩窮人.”

백광훈의 원조이다. 백광훈은 백현례 못지않은 명필이었고 최충에 견주기는 어렵지만 최경창도 1573년, 34세로 독서당에 선발된 문장가였다. 하지만 백광훈 자신의 이때의 처지는 감가 불우의 삶이었고, 최경창도 그다지 만족스러운 환로를 가고 있지는 못하였다. 자신과 이런 묘한 관련이 있는 폐사의 잔비를 보고 과거 조상들의 영예와 현재 자신의 불우를 돌아볼 때, 상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상념을 삭이고 삭이어 다시 생각해 보면 오백 년 뒤 오늘에 본 조상의 영예나 오늘로부터 오백 년 뒤에 보는 오늘 나의 불우나 모두 ‘落日’과 ‘歸雲’일 뿐이니 이를 불교적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輪廻라고 할 것이다.⁵⁾ ‘前朝寺’, ‘殘碑’, ‘千年流水’를 ‘歸雲’과 함께 마무리하는 ‘落日’로 措辭한 ‘석양’의 이미지는 회고 과정에서 생긴 感傷을 삭여 마무리하는 새삼스러운 깨달음 - 無常, 즉 모든 존재는 변화한다는 진리의 재확인인 것이다.

偶因春盡步前村	우연히 봄 다 가 앞마을에 가
病客情來不自言	병객이 정으로 왔다 스스로 말하진 않는구려.
何事高僧歸亦急	무슨 일로 고승께서 이리 급히 돌아가시는지
暮雲空望薛衣翻	석양 구름에 깐스레 나부끼는 벽라만 바라보네.

<贈處敏上人>

처민 스님에게 준 이 시는 시인이 봄이 다 간 줄도 모르게 아팠다가 좀 나아지자 친구를 찾아 나섰다가 스님을 만나 반가운데, 스님이 서둘러 돌아가자 “萬事分已定, 浮生空自忙”이라고 꼬집는다. 결국 ‘暮雲’은 <弘慶寺>의 ‘歸雲’과 ‘落日’을 합한 것으로 <弘慶寺>의 ‘석양’이 거시적 무상이라면 여기 ‘暮’로 조사한 ‘석양’은 미시적 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백광훈은 고아하고 한정, 담박한 시풍으로 도연명과 쌍벽을 이루며 중국 산수 전원시를 진일보 발전시킨 중당 시인 韋應物⁶⁾의 시를 즐겨 읽었다.⁷⁾

5) 김영국, 「옥봉 백광훈의 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논문, 1994, 75쪽.

6) 葛曉音, 김영국 옮김, 『중국의 산수전원시』, 계백, 2002, 596-615쪽.

7) <答振南書-辛巳>, 『玉峯別集』, 13쪽.

玉笛嘹嚶響遠天 먼 하늘에서 들려오는 옥적 소리
 夕陽霞彩媚晴川 석양 노을빛에 아름다운 맑은 시내.
 共君歸去醉忘發 그대와 함께 돌아가다 취하여 갈길 잊고
 一杖山風步步仙 산바람에 지팡이 하나 걸음마다 신선이오
 <寶林寺贈衍上人>

위응물의 “寒樹依微遠天外, 夕陽明滅亂流中⁸⁾”과 이 시 1,2구의 ‘석양’ 이미지는 공히 산수전원의 담박한 閑情이다. 즉 멀리서 들려오는 피리소리만으로는 아직 아쉬운 산수전원의 한가로운 정취를 석양으로 갈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11세 때, 시의 초장을 부르면 종장을 외워 답하는 ‘초·종장놀이’에서 어떤 선배가 ‘春’자를 불러 고시로 종장을 답하라고 하자 ‘江花樹樹春’이라고 곧장 대답하니 그 선배가 그런 구절은 없다고 하였다. 이에 전편을 외우기를

夕陽江上笛 석양 강 위의 피리소리는
 細雨渡江人 가랑비 속에 강을 건너는 사람
 餘響杳無處 여향은 묘연히 간 곳이 없고
 江花樹樹春 강 꽃 가지마다엔 봄이 왔구나.
 <陵霄臺下聞笛>

라고 하니 시의 體格이 완연한 당시이므로 모두 그런 구절이 있나 보다 하였다. 잠시 후 그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즉석에서 지은 시임을 실토하자 모인 사람들이 모두 그의 시재에 놀랐으며 이 일이 향리 전체로 퍼져 미담·전설이 되었다.⁹⁾ ‘細雨渡江人’의 밑그림이 된 ‘夕陽江上笛’의 ‘석양’ 이미지는 고즈넉할 정도로 한가롭고 평온한 산수전원의 한정이다. 3,4구 ‘餘響杳無處, 江花樹樹春’으로 1,2구를 페이드아웃하고 있다.

8) <自鞏洛舟行入黃河卽事寄府縣僚友> 함련(新華書店北京發行所, 『全唐詩』, 中華書局, 1990, 6책 1904-1905쪽)

9) 『年譜』, 『玉峯別集』, 31-32쪽.

山雨不成泥 산비는 흙탕이 되지 않았는데
 山雲空自廻 산 구름만 속절없이 돌아가네.
 誰憐茂陵病 누가 나의 병을 염려해 줄까?
 日暮望琴臺 석양에 그대 있는 곳을 바라다보네.

<寄文叔章 其一>

여기의 병과 호응하는 ‘석양[日暮]’ 이미지는 그리움을 넘어 ‘어떻게 해 볼 수 없는[無奈¹⁰⁾] 서글픔[惆悵]’이다. 산비가 오기는 했어도 손이 못 올 정도는 아닌 데, 찾아오는 이 없고 산 구름만 속절없이 흘러오고 흘러간다. 삶의 본질이 고독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외로운 병중에 친구를 그리며 바라보는 석양은 한없이 서글프기만 하다.

江寺門前雨中別 강가 절 문 앞에서 빗속에 헤어지니
 問君西去幾時還 그대에게 묻노니 서도로 가면 언제 돌아오려나.
 天涯相憶倍惆悵 멀리서 서로 그리매 더욱 서글프니
 落日獨登長壽山 석양에 홀로 장수산에 올랐겠지요.

<送天靈上人西遊寄崔立之 其一>

서도로 여행가는 천영 스님 편에 친구崔立之(1539-1612)에게 부치는 시이다. 최립이 황해도 재령군수로 있었던 것이 1581년이고, 백광훈이 1582년에 출하였으니 죽기 한 해 전의 작이다. 우중에 천영 스님을 보내는 서글픔은 그래도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참을 만한 서글픔이다. 천애의 參商이 되어 서로 그리워하는 ‘석양[落日]’ 이미지는 그리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서글픔’인 것이다.

客行知近遠 나그네길 원근을 아니
 處處有青山 가는 곳마다 청산이 있네.
 日晚江南望 석양에 강남을 바라보니
 相思燕子還 제비 돌아와 더욱 그립네.

<寄友 其二>

10) 李丹, 45쪽

죽마고우 최경창에게 보내는 절구 두 수¹¹⁾ 가운데 둘째 수이다. '日晚'으로 조사한 '석양'에 번진 상념은 그리움이다. 강남을 바라보며 강남에서 제비가 돌아오듯 그리운 친구가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석양' 이미지는 그리움인 것이다. 백광훈 절구의 함축미는 열 자로 열 줄의 그리움을 농축해낸다. 백광훈은 이와 같은 唐詩의 표현 역량을 습득하여 언어와 구법을 단련하고 함축적이면서 자연스런 시적 미감을 완성시켰다.¹²⁾

孤村一病又黃梅 고촌에서 쪽 앓고 있어도 매실은 또다시 익고
 愁見風光日日催 시름겨워 바라보는 풍광 나날이 다릅니다.
 芳草閉門無客到 방초에 닫힌 문 오는 손 없더니
 夕陽聞犬有僧來 석양에 개 짖는 소리 스님이 오셨네요. <贈行思上人>

봄꽃 다 이울고 방초 우거진 초여름까지 외딴 마을에서 쪽 앓고 있어도 아무도 찾는 이 없다. 고립되어 힘든 삶일수록 그리움은 더할 수밖에 없다. 막연한 그리움 속에 혼자 풍광만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행사 스님이 문득 찾아온 '석양'은 다소 해소된 그리움이다. 앞의 <寄友 II>의 '석양'이 실현되지 못한 그리움이라면 여기 '석양'은 실현되어 해결된 그리움인 것이다. 백광훈은 이렇게 삶 속에서 느껴지는 그리움과 고독을 담담하게 시로 형상화하였다.¹³⁾

백광훈의 절구 86수에 묘사된 '석양' 이미지는 無常, 산수전원의 閑情, 無奈의 서글픔, 한없는 그리움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대다수 절구의 '석양' 이미지는 산수전원의 한정이다. '석양'이 쓰인 절구들에는 바탕에 寒士의 隱逸觀이 깔려 있어 언뜻 외로움, 고독감, 절망감을 노래한 것처럼 보이지만,¹⁴⁾ 그 내면에는 현실을 超克하려는 삶의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백광훈의 절구에 나타난 '석양'과 술은 어차피 살아가야만 될 고달픈 현실의 伴侶였으며, 때로

11) 김금숙, 앞의 논문, 185쪽.

12) 김종서, 『玉峯集』 서문에 보이는 白光勳의 문예인식, 『한문학논집』 제29집(근역한문학회, 2009), 66-67쪽.

13) 천부성, 「옥봉 백광훈의 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논문, 2010, 52쪽.

14) 박병익, 「옥봉 백광훈의 당시풍 양상 고」, 『한국고시기분화연구』 제14집, 한국고시기분학회, 2004, 174쪽.

는 자신의 고독과 우수를 달래주는 좋은 친구이기도 하였다.

3. 시어 구성 양상

백광훈의 절구에서 ‘석양은 夕陽(15), 晚(13), 落日(11), 暮(10), 日暮(7), 夕(6), 斜陽(5), 日落(2), 落暉, 日已斜, 日又西山, 西日, 日終, 暝, 日出西峯, 殘陽, 日斜暉, 日未終, 殘暉, 日未斜, 黃昏, 斜日, 西山影으로 措辭되었다.¹⁵⁾ 이제 그 조사 양상을 사용 빈도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① 夕陽江上笛, 細雨渡江人.(5절2 陵霄臺下聞笛 1-2)¹⁶⁾
- ② 夕陽湖上亭, 春光在湖草.(5절11 富春別墅 1-2)
- ③ 呼童掃庭宇, 山影夕陽多.(5절39 過趙景元 3-4)
- ④ 僧尋何處約, 人倚夕陽秋.(5절68 送僧 3-4)
- ⑤ 天外夕陽盡, 歸帆山影中.(5절84 贈漁父 3-4)

①②의 ㉠○㉡●●●, ③④의 ㉠●●○●○, ⑤의 ㉠●●○●●¹⁷⁾에서 ‘夕陽’의 ‘陽’을 기준으로 평측에 맞춰 오언절구의 기본 구형인 2자, 3자 구성에서 ‘夕陽’이 쪼개지지 않게 조사하였다. ①②는 ‘석양이 전체 그림에서 부분으로 ③④는 반대로, ⑤는 함께 전개되어 광활하고 황량한 느낌을 주는 ‘落日과는 달리 ‘석양은 하늘 끝의 저녁노을을 생각나게 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어 산수전원의 한정을 공감하게 한다.

- ① 紅葉飛飛碧洞陰, 柴門不掩夕陽深.(7절13 煙霞洞訪劉上舍不遇 1-2)
- ② 處處人家竹下扉, 鳥歸南浦夕陽微.(7절71 敬次思庵韻淡峻軸 1-2)

15) () 안의 숫자는 사용된 횟수이다.

16) (5절2 陵霄臺下聞笛 1-2)의 ‘5절2’는 『玉峯詩集』 소제 오언절구 일련번호 2, ‘陵霄臺下聞笛’는 詩題, 1-2는 제1,2구를 뜻한다. 짙은 글씨는 仄聲字이다.

17) ㉠: 平仄互用, ㉡: 평음, ㉢: 측음. 밑줄은 ‘夕陽’이 措辭된 위치이다.

- ③ 欲別遲遲不盡心, **滿湖山色夕陽**林.(7절85 自懸津舟向白蓮社 1-2)
- ④ 散向平坡草政肥, 倒騎長是**夕陽**歸.(7절94 望浦亭八景Ⅱ 香村牧笛 1-2)
- ⑤ 芳草閉門無客到, **夕陽**聞**犬**有僧來.(7절18 贈行思上人 3-4)
- ⑥ 細酌芳樽酬好節, **夕陽**花下倚酣眠.(7절26 東溪次竹谷韻 3-4)
- ⑦ 玉笛嘹嘹響遠天, **夕陽**霞彩媚晴川.(7절79 寶林寺贈衍上人 1-2)
- ⑧ 秋山雨過**夕陽**明, 亂水交流引獨行.(7절80 介山路 1-2)
- ⑨ 醉尋江路**夕陽**西, 暫倚瓊欄萬嶺低.(7절111 和樂亭 1-2)
- ⑩ 晴到**夕陽**山更綠, 隔林簾唱牧歸兒.(7절21 自泅陽辭行 3-4)

①②③④⑧⑨에서 '夕陽'을 ㉠○㉡●㉢○의 운율에 맞춰 조사하여 이미지와 운율이 조화된 완정미를 추구하였다. ⑤⑥⑦도 위치만 다를 뿐 조사 방식은 같다. ⑩만 ㉠●㉡○㉢●으로 '陽'을 기준으로 썼다. 칠언절구의 기본 구형인 4자, 3자 구성에서 '夕陽'이 쪼개지지 않게 조사한 것은 오언절구에서와 같다. 칠언절구의 화폭이 오언절구보다는 넓기 때문에 '석양'은 부분을 접한다. ⑤ 이외에는 모두 산수전원의 한정을 노래하였다.

- ① 日**晚**江南望, 相思燕子還.(5절6 寄友Ⅱ 3-4)
- ② 日**晚**溪南雪, 僧從海上山.(5절99 贈信堅上人Ⅱ 1-2)
- ③ **晚**愛溪上晴, 橫琴坐古石.(5절12 題金季綏畫八幅Ⅷ 1-2)
- ④ 春山日已**晚**, 杯盡却忘言.(5절61 贈魏而栗 3-4)

①②의 ㉠●㉡○㉢●, ③의 ㉠○㉡○㉢○, ④의 ㉠○㉡●㉢●에서 '晚'은 외자이기 때문에 조사가 보다 자유롭지만 평측에 맞춰 쓴 ①②④가 더 잘 들어맞는 느낌을 준다. ①②는 그리움, ③은 한정, ④는 惜春의 이미지이다.

- ① 村口溪深**渡晚**船, 柴門竹逕望依然.(7절17 訪雙溪翁 1-2)
- ② 也知飛去終泥土, 不用紛紛**逐晚**風.(7절189 漫興奉呈宋礪城頤菴 3-4)
- ③ 歸來手點丹經字, **寂歷**桐花**墜晚**風.(7절191 題二清齋室 3-4)
- ④ **晚**來風急船難進, 愁倚蘭橈望遠汀.(7절43 採菱曲 3-4)
- ⑤ 明日孤帆天際落, **晚**江疏磬雨霏微.(7절99 贈思峻上人 3-4)

- ⑥ 想得仙翁無一事, **晚**花庭**院**有新詩.(7절190 又次寄呈頤菴 3-4)
- ⑦ 長堤**日****晚**少人行, 楊柳青青江水聲.(7절11 綾陽北亭舊別 1-2)
- ⑧ 禪房**寂****寂****晚**雲侵, 睡起虛簷細竹吟.(7절119 山寺口占 1-2)
- ⑨ **雨**洗**晚**沙煙未盡, 小舟撐出是湖心.(7절136 金士重伏巖江墅 3-4)

①②③은 ㉠●○●●○, ④⑤⑥은 ㉠○●●○●○, ⑦은 ㉠○●●○●○, ⑧은 ㉠○●●○●○, ⑨는 ㉠●●○●●○으로 조사하였는데,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외자 시어인데도 평측에 맞춰 쓴 ①②③⑦의 운율미가 보다 더 낫다. ⑤의 惜別 외에는 모두 한정인데, 같은 ‘석양’ 이미지이지만 ‘晚’은 ‘夕陽’에 비해 다소 어둡고 외롭다.

- ① 千年有流水, **落**日見歸雲.(5절1 弘慶寺 3-4)
- ② 春風吹綠酒, **落**日重淹留.(5절22 題徐上舍別業 3-4)
- ③ 共傾無事酒, **落**日滿山樓.(5절49 鄭清源谷口堂 I 3-4)
- ④ **落**日寒溪曲, 山杯雪後村.(5절17 哀淨源 I 1-2)

①②③의 ㉠●●○●○, ④의 ㉠●●○●○의 평측에 둘 다 측자인 ‘落日’을 비껴 써 ‘日’만 측운으로 썼다. ① 이외 모두 한정의 이미지로 썼고,

- ① 醉眠江上石, **日**落遠峯陰.(5절18 汭上路醉後 1-2)
- ② 鶴鳴樹煙淨, **日**落秋山寒.(5절100 出長春洞 1-2)

도 같은 조사 방식이지만 ‘日落’이 ‘落日’과 다른 점은 시간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석양’이라는 점이다.

- ① 草色長橋**落**日時, 三三遊騎絡青絲.(7절51 廣寒樓次蓀谷李益之 1-2)¹⁸⁾
- ② 醉入橋亭**落**日明, 山童迎步笑欹傾.(7절69 題挹瀛堂 I 1-2)

18) 김영국, 「옥봉 백광훈의 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03쪽. 1578년 봄에 백광훈, 이달, 梁大槩(1544-92), 林悌(1549-87)가 광한루에 모여 수창하였다.

- ③ 徒倚高樓落日時, 青山不盡鳥歸遲.(7절117 連珠亭 1-2)
- ④ 歸時何處堪回首, 落日西陵是白雲.(7절178 梅花堂次李內翰仲高 3-4)
- ⑤ 天涯相憶倍惆悵, 落日獨登長壽山.(7절187 送天靈上人西遊寄崔立之 I 3-4)
- ⑥ 孤城落日水雲涼, 簾捲青山近畫堂.(7절116 綾陽和丁使君 1-2)
- ⑦ 野岸雲開水似天, 寒林落日客行邊.(7절126 贈尹通甫別 1-2)

①②③의 ㉠●㉡○㉢●○의 평측에 4자, 3자 구조의 후 3자의 머리에 '落日'을 넣어 전 4자가 '석양' 이미지를 수식하게 조사하였다. ④⑤도 ㉣●●㉤○㉥●○의 같은 평측으로 '落日'의 위치를 바꾸어 ①②③이 도착점의 '석양'이라면 ④⑤는 시작점의 '석양'이다. ⑥⑦은 ㉦○㉧●●㉨○㉩○의 평측에 '落日'이 4자, 3자 기본구조에서 쪼개지지 않게 조사하면서 앞 2자와 뒤 3자를 연결하는 '석양' 이미지로 썼다.

- ① 依然舊時事, 花上暮禽啼.(5절40 重投景元家 3-4)
- ② 寥落空齋暮, 池花獨可親.(5절71 折荷花寄閔都事愨初 1-2)
- ③ 馬島城邊商舶行, 兔頭祠下暮潮生.(7절41 海上作 1-2)
- ④ 此去重來又幾時, 綠楊千樹暮江湄.(7절77 贈吳國彥還京 II 1-2)
- ⑤ 何處斷鴻猶未下, 暮雲天際獨悲鳴.(7절94 望浦亭八景 VI 金沙秋晚 3-4)
- ⑥ 誰會客心兼別恨, 暮雲容易度前山.(7절101 錦城途中回寄閔都事愨初 II 3-4)
- ⑦ 何事高僧歸亦急, 暮雲空望薛衣翻.(7절159 贈處敏上人 3-4)
- ⑧ 相訪孤村暮雪深, 寒齋寄宿伴誰吟.(7절105 贈圓澈上人 1-2)
- ⑧ 霜風弊盡木綿裘, 獨上江樓倚暮愁.(7절154 旅遊有感 1-2)
- ⑨ 更吹玉笛前村暮, 棹入新流一望平.(7절65 龍湖雜詠 II 3-4)

측자 '暮'는 ⑧ 외에는 모두 평측호용의 자리에 조사하였고, 의미의 흐름에 있어서 2,3자, 4,3자의 기본구조를 지켰다. '석양'의 시적 정조는 ⑥의 서별, ⑦의 무상, 나머지는 한정이다.

- ① 獨行愁日暮, 僧磬白雲間.(5절10 過寶林寺 3-4)

- ② 忽憶西庵僧, 遙聞日暮磬.(5절24 病後 3-4)
- ③ 誰憐茂陵病, 日暮望琴臺.(5절70 寄文叔章 I 3-4)
- ④ 日暮槩聲山影裏, 綠蘋浴漾滿船涼.(7절15 清暎亭四時詞 II 3-4)
- ⑤ 日暮白雲峯後過, 萬株紅葉下寒山.(7절157 頭輪寺 3-4)
- ⑥ 日暮驅驢度石橋, 遙聞微磬在山椒.(7절184 贈奉恩僧雲水 1-2)
- ⑦ 古壘簫簫草樹間, 寒天日暮鳥飛還.(7절94 望浦亭八景 III 婆城暮嵐 1-2)

만면 ‘日暮’의 ‘暮’는 측자의 자리에 쓰였는데, 그것은 둘 다 측자이기 때문에 평측이 같아드는 절구 운율을 맞춰 ‘暮’를 그렇게 썼을 것이다.¹⁹⁾ ③의 ‘석양’ 이미지는 서글픔, 나머지는 한정이다.

- ① 斜陽聽鐘磬, 溪路未應迹.(5절60 頭輪北庵寄尚山人 3-4)
- ② 山氣斜陽裡, 天光久雨餘.(5절101 醉贈尹而栗 1-2)
- ③ 寒鴉亦何事, 山外是斜陽.(5절12 題金季綬畫八幅 II 3-4)
- ④ 斜陽寂寂閑眠起, 滿地落花春雨痕.(7절50 村居 3-4)
- ⑤ 雨餘深巷淨沙塵, 門掩斜陽綠滿隣.(7절180 客窓春後 1-2)

‘斜陽’은 둘 다 평자여서 그 조사 방식은 ‘日暮’와 같다. 즉 ‘日暮’가 ‘-’라면 ‘斜陽’은 ‘++’인 셈이다. 시적 정조는 한정이고 가장 밝은 ‘석양’이다.

- ① 竝馬沙汀夕, 雲林碧幾重.(5절42 龍淵醉別 1-2)
- ② 君從西海秋, 訪我南山夕.(5절48 贈友 1-2)
- ③ 漁人乘小艇, 日夕向江中.(5절78 題金士重江樹 1-2)
- ④ 蕭蕭浙浙又沈沈, 接海連山易夕陰.(7절35 荷浦次金嶧 1-2)
- ⑤ 歸禽度盡西山影, 數戶村邊有夕煙.(7절83 東溪次王兄韻 3-4)
- ⑥ 江上斷橋空夕照, 竹間茅屋半蒼苔.(7절48 題金晦叔橫灘圖 1-2)
- ⑦ 黃花已盡楓葉衰, 此夕相逢本不期.(7절30 贈鄉友 1-2)

19)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는 매우 수학적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 통계학을 가르치는朴秉銓 교수도 그렇다고 한다. 차후 밝혀볼 생각이다.

측자 ‘夕’은 모두 측자 자리에만 조사한 것이 독특하다. 이는 ‘暮’와 대조적이고 ‘晚’보다 치밀하다. 모두 한정을 이미지화하였고 그 뉘앙스(nuance)는 ‘斜陽’ 다음으로 밝다.

이 밖에 ‘석양’ 이미지를 조사한

- ① 却向江南望, 青山又落暉.(5절45 贈友南還 3-4)
- ② 寂寂閑眠起, 孤吟日已斜.(5절52 謝天維 3-4)
- ③ 相分一千里, 秋日又西山.(5절63 與萬竹京口別 3-4)
- ④ 青山無限意, 西日重徘徊.(5절64 過仲皓家有感 3-4)
- ⑤ 不愧貧居事, 相留到日終.(5절74 金君宗德來訪 3-4)
- ⑥ 掉廻山欲暝, 煙樹綠沈沈.(5절81 龍湖別立夫 3-4)
- ⑦ 雲收南野闊, 日出西峯明.(5절 104 題友人家 1-2)
- ⑧ 輕霞一抹山開處, 留住殘陽照掩門.(7절14 過龍湖 3-4)
- ⑨ 江上逢君又送君, 扁舟載酒日斜曛.(7절36 錦津舟上別閔恕初 1-2)
- ⑩ 水沈香盡小屏空, 睡起朦朧日未終.(7절58 睡起1-2)
- ⑪ 何許野禽啼更切, 落梅香斷又殘暉.(7절102 贈處英上人 I 3-4)
- ⑫ 花影重重日未斜, 寂無人過野人家.(7절125 題桂熙軸 1-2)
- ⑬ 覺來開戶無人見, 斜日離離映水中.(7절141 環碧堂 3-4)
- ⑭ 人間一樣黃昏月, 月在西湖分外奇.(7절167 西湖翫月圖 3-4)
- ⑮ 落帆人入西山影, 楊柳門前一逕斜.(7절176 楮子島北臺贈文仲吉 3-4)

를 통해 백광훈 절구의 ‘석양’ 이미지 표현의 다양성을 볼 수 있다.

4. 맺는 말

목릉성세기 삼당시의 중심인물 白光勳(1537-1582)은 맨 처음 학당을 주장했던 이후백의 초기 문인이었으며 양응정, 노수신에게 배운 뒤에 박순에게 배웠고 정철과는 지기로서 그의 문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백광훈 시의 우점은 평범한 시어의 압운에 따른 미적 포치를 통해 짧은 절구

에 자신의 청신한 정서를 고담하게 담아낸 데 있다. 이는 情과 景이 하나로 융합된 이미지를 찾아 짧은 절구에 함축시킴으로써 가능하였다.

백광훈은 풍부한 唐詩 표현 역량으로 ‘落日’, ‘暮’, ‘晚’, ‘夕陽’ 등을 시구 속에 자연스럽게 措辭하여 無常, 산수전원의 閑情, 無奈의 서글픔, 한없는 그리움의 ‘석양’ 이미지를 함축시키고, 칠언절구의 기본 구형인 4자/3자 구성에서 ‘夕陽’, ‘落日’이 쪼개지지 않게 조사하면서 앞 2자와 뒤 3자를 연결하는 ‘석양’ 이미지를 써 뛰어난 시적 미감을 완성시켰다.

백광훈은 같은 詩料일지라도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 적의하게 조사함으로써 절구를 보다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아울러 함축을 통한 유원함을 추구하여 이미지가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지고 깊은 여운을 남기게 하였다. 이는 情·景을 융합한 사물의 보편적 이미지화를 통해 가능하였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백광훈 시 속에 나타나는 시어의 분류와 분석에만 치중하다 보니 정작 시어의 수사적 방식에 따른 미감의 형성 과정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냈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 아쉬움을 ‘석양’ 이미지의 시적 미감의 형성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후고로 미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金得臣, 『栢谷文集』.
 金昌協, 『農巖全集』.
 南龍翼, 『箕雅』.
 盧守愼, 『蘇齋集』.
 朴淳, 『思菴集』.
 白光弘, 『岐峯集』.
 白光勳, 『玉峯詩集』.
 _____, 『白氏大同譜』(丙子譜, 1876).
 申欽, 『象村集』.
 楊應鼎, 『松川先生遺集』.
 柳夢寅, 『於于野談』.
 李達, 『蓀谷集』.
 李晬光, 『芝峯類說』.
 李廷龜, 『月沙集』.
 李後白, 『青蓮集』.
 林億齡, 『石川集』.
 鄭澈, 『松江集』.
 崔慶昌, 『孤竹遺稿』.
 許筠, 『國朝詩刪』.
 洪萬宗, 『詩話叢林』.

2. 논저

- 강석중, 「옥봉 백광훈의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제6집, 태학사, 2001, 491-508쪽.
 권순열, 「옥봉 백광훈 연구」, 『고시가연구』 23권,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1-24쪽.
 (UCI: G704-001062.2009..23.002)
 김금숙, 「白光勳 漢詩에 나타난 공간 이미지 분석」, 『어문논집』 제38집, 중앙어문학회, 2008, 171-193쪽.
 (UCI: G704-SER000009652.2008..38.009)

- 김영국, 「백옥봉의 오언절구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제11집, 조선대 인문과학연구소, 1989, 135-174쪽.
- _____, 「백옥봉의 칠언절구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제12집, 1990, 225-240쪽.
- _____, 「백광훈시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제13집, 1991, 79-90쪽.
- _____, 「옥봉 백광훈의 시 연구」, 원광대 박사논문, 1994.
- 김중서, 「옥봉 백광훈 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4.
- _____, 「옥봉 백광훈 시의 풍격」, 『한국한시연구』 제3집, 한국한시학회, 1995.
- _____, 「옥봉 백광훈 시에 나타난 전원의 양상」, 『한국한시연구』 제8집, 한국한시학회, 2000.
- _____, 「『玉峯集』의 체제와 壬戌春刊本에서 刪削된 시의 성격」, 『동방고전문학연구』 2집, 동방고전문학회, 2000.
- _____, 「옥봉 백광훈의 삶과 시세계」, 『원광한문학(호남의 문학과 사상)』 제6집, 원광한문학회, 2000.
- _____, 「옥봉 백광훈과 호남시단의 연구」, 『한국한시연구』 제10집, 한국한시학회, 2002. (UCI: G704-000619.2002.10..012)
- _____, 「16세기 호남시단과 삼당시인」, 『한국한시연구』 제11집, 한국한시학회, 2003. (UCI: G704-000619.2003..11.004)
- _____, 「16세기 호남시단과 당풍」,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4.
- _____, 「옥봉 백광훈 시의 함축적 성격」, 『한국한문학연구』 제35집, 한국한문학회, 2005, 169-208쪽. (UCI: G704-000273.2005..35.002)
- _____, 「『玉峯集』 서문에 보이는 白光勳의 문예인식」, 『한문학논집』 제29집, 근역한문학회, 2009, 37-72쪽. (UCI: G704-SER000008636.2009.29..002)
- 문선규, 『중국문학사』, 경인문화사, 1972.
- 민병수, 『한국한시사』, 태학사, 1996.
- 박병익, 「옥봉 백광훈의 당시풍 양상 고」, 『한국고시기문화연구』 제14집, 한국고시기문화학회, 2004, 149-178쪽. (UCI: G704-001062.2004..14.013)
- _____, 「16세기 삼당시인의 당시풍 연구」, 목포대 박사논문, 2005, 59-83쪽.
- 박영관, 「옥봉 백광훈 시에 나타난 교유관계 연구」, 『한국고시기문화연구』 제16집, 한국

- 고시기문화학회, 2005, 139-168쪽.
(UCI: G704-001062.2005..16.010)
- _____, 「옥봉 백광훈의 교유와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논문, 2006.
- 박은숙, 『16세기 호남 한시 연구』, 월인, 2004.
- 박종훈, 「옥봉 백광훈의 시세계 연구 - '창'과 '답'의 특질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2000.
- 변종현, 「백광훈 한시 연구」, 『교육이론과 실천』 제12권 제2호, 경남대 교육문제연구소, 2002.
- 안병하, 「삼당과 시세계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8, 80-112쪽.
- 유현숙, 「옥봉 백광훈론」, 『석당논총』 Vol.19 No.1, 동아대 석당학술원, 1993.
- 윤재환, 「『三唐集』을 통해 본 조선 중기 문인들의 이별 그리고 그리움의 변주: 삼당 사이의 교유시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제7집, 고전문학한국문학연구학회, 2009.
(UCI: G704-SER000010566.2009.7..009)
- 李丹, 「백광훈과 李商隱의 한시 비교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16.
- 이선희, 「옥봉 백광훈의 한시 연구: 절구시를 중심으로」, 충남대 석사논문, 2004.
- 임채룡, 「백광훈의 작품세계」, 『중국어문논총』 제6집, 중국어문연구회, 1993.
- 정병홍·임채룡, 「삼당시인 백광훈의 한시」, 『인문사회과학편』 제10집, 순천대 논문집, 1991.
- 정익섭, 『호남가단연구』, 민문고, 1989.
- 조영임, 「삼당시인의 시세계 연구」, 충북대 박사논문, 2004.
- 차경화, 「옥봉 백광훈의 교유시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1998.
- 차용주, 「백광훈 연구」, 『한국한문학 작가연구』 제3집, 아세아문화사, 2001, 276-316쪽.
- 천부성, 「옥봉 백광훈의 시 연구」, 청주대 석사논문, 2010.
- _____, 「옥봉의 시세계」, 『한문고전연구』 제21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UCI: G704-002001.2010.21.1.0020)
- 최경환, 「백광훈의 오언절구와 정경결합양식」, 『동양한문학연구』 제8집, 동양한문학회, 1994.
- 최낙원, 「옥봉 백광훈의 한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86.
- _____, 「옥봉 백광훈의 정회시 연구」, 『한문학논집』 제6집, 단국대 한문학회, 1988.
- 허영섭·황필홍, 『한시작법의 정석』, 단국대학교출판부, 2009.
- 허경진, 『옥봉 백광훈 시선』, 평민사, 1992.

- 嶽秋菊·張京青, 「“三唐詩人”詩歌藝術特色論析」, 『理論學刊』第10期, 山東大學威海分校, 2009.
- 楊會敏, 「論朝鮮朝詩人白光勳詩歌的宗唐風韻」, 『哲學社會科學版』齊齊哈爾大學學報, 2011.
- 조달순 역, 『三唐詩』, 태학사, 1999.
- 葛曉音, 김영국 옮김, 『중국의 산수전원시』, 계백, 2002.
- 王力 지, 송용준 역, 『중국시율학』1, 소명출판, 2007.
- 陳必祥, 심경호 옮김, 『한문문체론』, 이회, 2001.
- 메를로 폰티, 오병남 옮김, 『現象學과 藝術』, 서광사, 2006.

| Abstract |

The Wording Aspect of the 'Setting Sun' Image in Paek Kwang-hun's Poetry

Kim, Young-kook

Paek Kwang-hun(1537-1582) calmly expressed his original emotion in short wordings of poetry through an aesthetic porch according to rhymes. He converged images of feeling with scenery to achieve his poetic intention.

This study intended to analyse rhetorical types he used in his poetry that have never been examined in existing studies. Paek Kwang-hun used materials for poetry properly according to situations and conditions to express quatrain more beautifully and naturally. In addition, as he pursued for eternal images through implication, he made the images interpreted symbolically and have deep aftereffects.

He used words of setting sun, an angle, a bay and sunset in his poetry to imply "setting sun" image of transiency, calmness of hills, rivers, fields, sorrow and endless missing. He arranged words of 'setting sun' and 'sunset' without spill in the structure of four words and three words, a fundamental wording type of a quatrain with seven words to a line and used the 'setting sun' image that connected two letters as the head with three letters as the tail to accomplish poetic aesthetics.

Key words : Paek Kwang-hun's poetry, 'setting sun' image, Meaningful symbols, Chinese quatrain, Wording, Pingze, Rhyming, Tang poetic style

